

현안 관련 브리핑

2020.6.4(목) 10:40, 여상기 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
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,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.

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
의 환경오염,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
고 있으며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, 접경지역의 국민들의
생명·재산에 위협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.

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
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
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.

이상으로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. 질
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담화문을 통일부는 공식
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, 또 북한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
에 이 담화문을 실은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

립니다.

<답변> 동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과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노동신문에 실린 의도에 대한 분석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질문>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검토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개략적으로라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살포 중단에 대한 과거의 조치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.

<질문> 지금 법률이라고 하셨나요?

<답변> 예,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<질문> 법률안이라고 하면 정부안을 발의를 하실 계획이신건지 하고요.

단체에서 6월 25일에 또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?

<답변>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6월에 동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4월 9일 이후로 지금 5월 31일까지 3차례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이 문제가 된 살포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 건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<질문> 오늘 원래 백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온브리핑으로 전환해서 현안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, 그렇게 전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?

<답변> 대북전단 문제가 끼치는, 남북관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

<질문> 김여정 담화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건가요? 유감 표명이 라든가.

<답변> 담화에 대한 것은 정부 입장 발표로, 담화에 대한 평가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발표로 대신하겠습니다.

<질문> 담화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인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

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?

<답변>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 담화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.

<질문> 법률안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.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***

<답변> 네,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될지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

<질문> ***

<답변> 네,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이든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지금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'당장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최악의 사태를 볼 것이다.'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인해서 예고된 6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가 있는지, 그게 가능한지,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,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

<질문> 북한이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철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

음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?

<답변> 이번이 처음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법률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연내 발의라든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한이 있으신가요?

<답변>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

<질문>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문이 김여정 담화문 발표 이전부터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건가요? 아니면 김여정 담화문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요?

<답변>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.

<질문> 북측에 별도로 입장을 보낼 계획은 있으신가요?

<답변>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.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

<끝>